

“활은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쏘야”

설악권 최초 ‘명궁’ 따낸 전인호씨 ... 하루 3시간 꾸준한 운동으로 스트레스 날려

“활은 힘으로 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쏘야 합니다. 꾸준히 활을 쏘다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균살이 사라지면서 균형이 잡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간성읍 시가지에서 제과점(파리마켓) 간성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인호씨(48세, 사진)가 설악권 최초로 국궁 ‘명궁’ 칭호를 얻었다. 국궁은 초단부터 9단까지 있으며, 5단 이상을 명궁이라 부른다.



전씨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공주에서 열린 대한궁도협회 주최 제44회 전국 궁도 종별선수권대회에서 승단심사에 도전해 5단을 따냈다. 대한궁도협회는 매년 1회 승단 대회를 연다.

국민생활체육 고성군궁도연합회 ‘수성정(사두 김영길) 회원인 전씨는 수성정에서 활을 가르치는 ‘사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궁 활터인 ‘사정’에서는 대표를 사두, 활을 가르치는 사람을 사범, 활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을 접장이라고 부른다. 사대에 설 때도 보통 이 순서를 따른다.

전씨가 국궁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 2000년. 간성 출신으로 고향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서 유학생생활을 하던 전씨는 대학 졸업 후 서울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귀향했다.

고향에서 자영업업을 시작한 전씨는 한 때 골프를 쳤으나, 바쁜 일과 때문에 도저히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혼자서도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다며 국궁을 소개해 줘서 시작하게 됐다.

“매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정도 활을 쏘다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활력이 재충전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 운동을 안했다면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지난 1990년 설립된 수성정



설악권 최초의 ‘명궁’으로 기록된 전인호씨의 활쏘는 모습.

은 강원도지사기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는 등 도내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수성정이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자정대회’의 결과이기도 하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자정대회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 지역 동호인들끼리 정식 시합 복장을 갖추고 입교 친선경기를 갖는 것이다.

수성정은 특히 30, 40대 젊은 회원들이 많다는 게 장점이다.

또 고성중고 금강학사 입소 학생들과 1, 2학년 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궁을 가르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고성군 궁도연합회에 가입하고 싶은 주민들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이 됐다고 당장 활을 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두 달쯤 자세와 호흡법 등을 배운다. 이 기간에는 활터에서 활과 화살을 빌려준다.

본격적으로 즐기려면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활은 각궁과 개량궁이 있다. 소빨로 막든 전통 각궁은 60만원, 개량궁은 25만원 가량 한다. 화살은 1개 8천원인데 20개 가량을 사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활을 쏘는 천인 궁대와 손가락을 보호하는 각지도 필요하다. (수성정 가입문의 : 681-1060)

최광호 기자

행복한 가족이 만드는 아크릴 탁상시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의 날 행사 열려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7시 여성회관 2층 강의실에서 고성군 거주 10가족을 대상으로 아크릴을 이용한 탁상시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크릴 재료를 이용해 가족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뿐인 아크릴 탁상시계를 만드는 것으로, 투명하고 단단한 아

크릴에 가족들이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 사랑의 중요성을 알게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승근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8]

독립운동가 안흥식(安興植)

1899년 9월 3일 ~ 1974년 11월 8일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임남면(臨南面) 장전리(長箭里) 232번지이다. 1919년 3월초에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가 입수되자, 최상린(崔祥麟)·김두만(金斗萬)·우낙영(禹洛榮, 得榮)·박성준(朴成俊)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당시 고성군(高城郡) 신북면(新北

面) 면사무소에서 독립선언서 90여매를 등사하였다. 3월31일에는 태극기 250개를 만들었고, 4월 1일에는 장전리(長箭里) 기독교인의 집을 찾아가 2일에 있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4월2일 기독교인 약 20여 명을 모아 미리 작성한 태극기

를 배부하여 주고 앞장서서 동리(고성읍) 다리까지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최상린·김두만·우낙영(득영)·박성준 장전 감리교회 목사인 유시국(劉時國) 등과 함께 동리에서 백여 명을 모아놓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경찰주재소까지 행진하는 등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다가 체

포되었다.

1919년 5월 23일 매일신보에 따르면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징역 1년 6월 최상린(당시30세), 징역 1년 3월 김두만(60), 안흥식(21), 우득영(18) 징역 1년 박성준(20), 징역 8월 유시국(44)이라고 보도하였다.

이해 7월 2일 경성 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 3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3년에 대통

령표창을 추서하였으며, 1990년에 애족장(愛族章)을 추서하였다.

出典: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第1卷, 光復會江原道支部,1991年, p.p.404~405. △『독립운동사(國家報勳處)』2卷 p.502 △『독립운동사 자료집(國家報勳處)』5集 p.p.970~972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